## '펫티켓 캠페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나서

11월 한 달간 반려인 비반려인 상호존중 예절,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공유

무주군은 지난 6일 무주읍 반덧불시 장에서 관련 공무원 등 20여 명이 동참 한 가운데 '펫티켓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에 성숙한 반려 동물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에서 오 는 30일까지 6개 읍면 산책로와 시장, 주택 밀집 지역 등지에서 추진할 예정 으로.

 $\Delta$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노력해 야 할 상호존중 예절을 비롯해  $\Delta$ 동물 등록·안전조치 이행 여부,  $\Delta$ 배설물 수 거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공유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반려인들은 △반려

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기슴줄(2m 이 내) 및 인식표 착용해야 하며  $\Delta$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소유자는 의무 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스타인과 일정 거리 유지, 스반 려동물 배설물 수거, 스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장 이용하기, 스맹견 소유자는 입마개 착용 및 책임보험 가입 등을 준 수해야 한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 책과장은 "현행법상 목줄·가슴줄 미착 용과 동물 미등록은 과태료 20만 원, 인 식표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반려동 물 준수사항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동 물과 사람이 더불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만큼 준수에 힘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행정에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관 련 내용 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해 나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6일 무주국민체 육센터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 사를 개최했다.

김서주 기자

## 상수도 확충사업 142억원 투입 미급수지역 해소

#### 미급수지역 주민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 마련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2026 년도 상수도 확충 신규사업 3건에 총 14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 대상지는 담양읍 학동리 예술인 마을과 창평면 외동리·광덕리·유곡리· 장화리, 가사문학면 연천리·경상리·지 곡리·봉암리·가암리·인암리·무동리, 대덕면 입석리 등이다.

이 지역들은 그동안 지방상수도 미공 급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컸던 곳이다. 현재 담양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5%로, 군은 2030년까지 93% 달성을 목표로 상수관로 확충 사업을 지속 추 진하고 있다.

이번 신규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수 고

갈과 수질 불량으로 어려움을 겪던 주 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 공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담양군은 올해 설계를 마친 창평면 유곡리·용수리 일대 상수도 공급공사 를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를 위 해 '신계정수장 확장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주요 식수원인 신계저수지 확충시업도 병행한다.

한편,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는 물구십리권역 농촌체험휴양마을 일 대에서 '담양군 풀뿌리공동체 한마당'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10년의 발자취, 새로운 도약의 출발'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 간 마을공동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온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를 공유하 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 됐다. 1부에서는 10주년 기념영상 상영 과 공로패 시상, 공동체상 수여, 비전 선 포식이 이어졌다.

풀뿌리밴드, 무정라인댄스, 부동새마을회 등이 참여한 어울림 공연이 열렸다. 2부 명랑운동회에서는 각 공동체가팀을 이뤄 협동과 화합의 의미를 나누며 한마당의 열기를 이어갔다.

. 우덕현 기자

# 블루존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 최종선정

전북도 특화사업, 남원형 고령친화 정주모델 구축 본격화…총사업비 2,044억 원



남원시는 올해 8월, 전북특별자치도 가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고령자 건 강 치유마을 조성사업 「블루존 프로 젝트」'의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어, 남원형 고령친화 정주모델 구축을 본 격화하고 있다.

'블루존 프로젝트(Blue Zone Project)'는 총사업비 2,044억 원 규모의 전북도 특화사업으로, 주거·의료·돌봄·여가가 통합된 고령친화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주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전북도와 공동으로 고령 자복지주택, 실버스테이, 의료요양시 설, 체육문화시설, 건강지원시설 등 핵 심 인프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관 련 제도 정비 및 국가 공모 연계 전략 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남원시 용정동 282 번지 일원으로, 교룡산 자락의 풍부 한 자연환경과 KTX·달빛철도 남원역, 17번 국도, 고속도로 IC 등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정주 여건 개선에 최적화된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주요 의료기관과 시내 중심 상권이 인접해 있어,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형 고령친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최적의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선정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 어진 남원시의 치밀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주요 시설 배치계획을 포 함한 마스터플랜과 단계별 추진 로드 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신속히 착 수하여, 체계적인 구체적인 실행 기반 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 조성 협력 TF 팀'을 공식 가동하고, 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향과 조성모델 설계를 위한 공 동 추진체계에 돌입했다. 지난 10월 3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 남원형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 조성 전략과 국가 공모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남원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은퇴 세대 및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건설·문화·관광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문화·농업·예술이 융합된 고령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치유로 피어나는 삶, 머물고 싶은 남원'이라는 도시 비전을 실현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남원시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전북특별 자치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블루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고령자에게는 건강한 노후 삶의 기반을, 지역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고령친화정주모델을 남원에서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총 22 가구 규모의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에 적극 나섰다.

입주자 선정은 그린대로 귀농귀촌 홈페이지 및 남원누리시민 가입 여부, 신청 연령, 귀농 교육 수료 등을 심사 하여 이루어진다. 시설의 입주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임대료 및 시설 사진 등 상세 정보는 남원시 홈페이지 및 귀농 귀촌 플랫폼(그린대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승민 기자

## 부안고향사랑기부자 초청 제2호 비호텔 개막식

부안군은 줄포만 노을빛 정원에서 제 2호 '비호텔(Bee Hotel)' 개막식을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 부 사업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고향사랑기 부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 다. 비호텔은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지 를 잃은 야생벌들을 위한 인공 서식지 다. 단순한 설치물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생태계 복원과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담 아 주민과 기부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생태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 다.

기. 특히 이번 제2호 비호텔은 줄포만을 상징하는 '흰발농게'를 모티브로 디자 인돼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상징성을 함 께 반영한 시도로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는 '아생벌 붕붕이를 지켜 주세요!' 지정기부에 참여한 기부자 중 다섯 가구를 초청해 본인의 기부가 어 떤 공간으로 실현되었는지를 직접 확인 하는 체험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부안군은 이들에게 '비호텔 분양증서'를 직접 전달하고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진 안내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는 등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정중한 예우를 표했다.

먼 제주도에서 일부러 행사에 참석한 기부자도 있었으며 그는 "지정기부로 참여한 사업이 눈앞에서 이렇게 공간 으로 실현되고, 제 이름이 남겨진 걸 보니 기부가 정말 내 삶에 들어온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진 비호텔은 지역과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기부자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예우와 감동 있는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막식은 기부자와 지역주민, 그 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기여한 관 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기 부금이 실질적 환경개선으로 이어진다 는 점에서 기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 었다.

이영임 기자

# 공영민 군수,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 격려해

고흥군은 6일 포두면 길두창고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 첫 수매를 시작 으로 오는 12월 5일까지 2025년산 공공 비축미 건조벼 매입에 돌입한다.

이날 현장을 찾은 공영민 군수는 벼 농사 작황 상태를 점검하고, 쌀값 불안 과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 업인을 격려했다.

올해 고흥군의 공공비축 매입 물량은 친환경 벼와 가루 쌀을 포함해 지난해 보다 약 6% 증가한 19,237톤이며, 매입 품종은 새청무와 참누리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 (10~12월)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된다.

농가는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당 4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받으며, 연말에 최종 정산을 받게 된다.

공영민 군수는 "올해 깨씨무늬병 등 어려운 기상 여건에도 양질의 쌀을 생 산하기 위해 힘쓴 농민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수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 수확기 벼 수매 상황 점검, 생산 농가 애로사항 청취



지 않겠으며,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깨씨무늬병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이추가 배정됨에 따라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며, 쌀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전남도로부터 2026년 도화 구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해 총 사업비 15억 원(도비 12억)을 확보했다.

우덕현 기자

# AI 기반 바이오 산업육성 5개기관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과 바이 오산업을 융합한 지역 신성장 동력 확 보에 나섰다.

전북도는 6일 도청에서 한국기계전 기전자시험연구원, 범부처통합헬스케 어협회,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5개 기관과 'AI 기반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안성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심기준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 AI 기반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과 공동 추진 ▲AI 기술을 활용한 연구·산업 기반 구축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화 지원 등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계획이다. AI 기반 바이오 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 사이버보안 지원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와 바이오산업이 융합된 지능형 바이오 생 태계를 조성해 지역 경제의 미래 먹거 리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기계·전기·전자·의료 등 전 분야 시험인 증 전문기관으로 약 700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는 5개 부처가 공식 지정한 국내 유일의 디지털헬스케어 전문기관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전북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AI 융합 바이오산업의 전국적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진안군에 전국 두 번째 국립 산림치유원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이 문을 열었다.

개원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진안고원산립치유원은 총사업비 911억 원(국비 80%, 지방비 20%)이 투입되어 치유센터, 숙박동(74실), 치유숲길(11km)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췄으며, 장·단기 체류형 산립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상호 기자

## 서점 감소 시대 전주 동네서점은 25% 성장 기록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서점의 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시는 오히려 동 네서점이 꾸준히 늘고 있어 주목을 받 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21년 기준 76 곳이었던 지역서점이 올해 현재 95곳으 로 늘어나 약 25%의 성장세를 기록하 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지역에는 자체적으로 문화 행사를 운영하거나 다양한 개성을 가진 동네책방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동네책방은 지난 2021년 10곳에서 올해 현재 19곳으로 90% 늘어났다. 이러한 반전은 시가 동네책방을 단순한 '책을 파는 가게'가 아닌 '생활문화 거점'으로 재해석한 결과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도서관 이용과 서

점 방문을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으며 책을 읽고 서점을 찾는 새로운 독서 흐름이 만들어졌다.

그 중심에는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 20' 제도가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권당 50포인트가 적립되고, 동네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도서 정가의 20% 할인과 함께 대출로 적립된포인트를 도서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책쿵20' 서비스에 가입한 시민은 약 3만3500명으로, 이들이 구매한도서는 총 54만5000권에 달한다.

책쿵20을 통해 올해만 약 22억5000 만 원 규모의 도서가 지역서점을 통해 판매되면서 시민의 독서 참여 확대는 물론, 지역서점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시가 운영하는 '전주도서관여 행' 코스에도 동네책방들이 포함돼 시민과 책 여행자들은 '도서관해설사'와함께 도서관과 복합문화공간을 둘러보며 책을 통해 도시를 '읽는 여행'을 즐기고 있다. 이 여행을 통해 책 문화를 즐기는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동네서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등 지역서점과의 연계효과를 높이고 있다.

박남미 본부장은 "전 국민이 도서관 과 동네책방 등 책과 문화를 누리는 도 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기. 신승민 기자